



도교육청, 전남학부모회연합회에 감사패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감실에서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희진 전남학부모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남교육 정책 제안 △교사정원 감축 반대 학부모 서명운동 전개 △전남 학부모 한마당 개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희진 회장은 "지난 1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전남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임원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5·18 45주년 기념 무등길완주대회 성료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전국무등산무등길완주대회가 지난 10일 무등산 무등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무등산무등길협회와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1,800여 명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완주대회는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완주(51.8km), 하프, 시민 걷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무등산 자락에 펼쳐진 무등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오롯이 체험하며 목표한 구간을 완주했다. 참가자 중 142명이 51.8km 전 구간을 8시간 이내에 주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총 400여 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4년 연속 참가한 30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수여됐고, 최연소(13세), 최고령(79세),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특별상이 주어졌다.

김민주 무등산무등길협회 상임의장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무등길이 무등산의 전통문화를 담아내는 길을 넘어 세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기억되도록 가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무등산을 에워싼 무등길은 5·18 정신과 무등정신을 잇는 상징적인 길"이라며 "이번 대회가 시민 통합과 역사 인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농협생명 전남총국, 농작업안전물품 기부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윤점숙)은 최근 전남농축협 35개소에 농작업 안전물품 3,5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광일 농협중앙회전남본부장, 윤점숙 NH농협생명 전남총국장과 35개 농축협을 대표해 농축협 9개소 조합장이 간담회 시간을 갖고 전남지역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후원물품은 고무장화, 안전장갑, 아이스 조각, 자외선 차단모자, 안면 보호대, 작업용 우의 등을 포함한 '안전박스'로 구성됐다. 지원된 물품은 농축협을 통해 전남지역 농업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점숙 총국장은 "이번 기부물품이 전남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전남총국은 농작업 재해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보험을 통한 사후보장에도 힘써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억하며 책갈피 만들었어요”

제3회 책갈피 그리기 대회 광주시 서구자원봉사센터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5·18역사공원에서 '제3회 책갈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오월 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서구 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책갈피 그리기'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작은 책갈피 위에 다채로운 그림으로 표현하며 창의적인 예술적 감각을 뽐냈다.

또한 '5·18 주먹밥 만들기' 체험 활동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5·18역사공원에서 '제3회 책갈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제공

을 통해 당시 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했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된 '5·18 들여다보기' 프로그램은 5·18 민주화운동의 간략한 역사적 개요 설명, 박용준 열사 소개, 5·18 사적지 안내, 희생자들을 기

리는 추모 리본 달기 등의 순서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5·18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승휘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책갈피 그리기 대회를 통해 5·18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며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앞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영영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GIST “초강력 레이저·광기술 전문기관 도약”

고등광기술연구원 개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으로 공식 승격된 것을 기념해 개원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인철·민형배 국회의원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 김동근 한국광융합진흥회 부회장, 윤진희 한국물리학회 회장(인하대 물리학과 교수), 이상민 한국광학회 회장 등 주요 기관 인사들과 50여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여개 국방·방산업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GIST에서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정성호 연구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100여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고도경 고등광기술연구원장(물리·광과학과 교수)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초강력 레이저와 광기반 기술을 선도하고 우주·국방·바이오·양자정보·에너지 등 미래 전략

분야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국가의 차세대 광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세계적 광기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포스트 광산업 기술교류회'에서

는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로 레이저 전문업체 ㈜루메닉스(대표 신우진·고등광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가 소개됐다. 이어 손익부·김기현·유난이·김복현 박사 등 고등광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한 '오픈 테크(Open Tech) 세션'을 통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들과 공유했다.

2부에서는 연구원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을 시작으로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임기철 GIST 총장은 "그동안 고등광기술연구소로 쌓아 온 여정을 바탕으로 '고등광기술연구원'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도약하게 돼 뜻깊다"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IBS 연구단과의 협력과 학제 간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광기술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농협광주본부, 농촌사랑 장수사진 촬영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최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과 함께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행복 장수사진 촬영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임직원과 농협광주노조(위원장 한계규), 농가주부모임 임곡분회 등 20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도왔으며,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을 맡았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돼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

지리산 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최근 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은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 문화 실천 의식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국립공

원 직무 체험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갈 예정이다.

대학생 서포터즈단의 주요 활동은 탐방객 안전 산행 지원 및 캠페인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현장 안전 교육(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요령) △찾아가는 안전 교실 운영 △안전 산행 캠페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MZ 세대의 참신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THE 안전한 대한민국’ 25-4호 현판식

한국법무공단 광주남부지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운철)가 최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정했다.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회장,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

국' 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 자립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민제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